

국내 소형 SUV 선두주자 '셀토스' 재탄생



기아 국내사업본부 정원정 부사장이 '디 올 뉴 셀토스' 신차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아, 6년만에 완전 변경 모델 공개…오늘부터 계약
하이브리드 신규 추가…다양한 편의 사양 등 탑재도

기아의 소형 SUV '디 올 뉴 셀토스'가 27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

이번에 출시한 셀토스는 1세대 모델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정통 SUV 스타일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요소를 더해 강연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했다.

셀토스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새롭게 추가해 1.6 하이브리드와 1.6 가솔린 터보 등 2개의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1.6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최고 출력 141마력, 최대 토크 27.0kgf·m, 최대 복합연비 19.5km/ℓ이며 1.6 가솔린 터보는 최고 출력 193마력, 최대 토크 27.0kgf·m, 최대 복합연비 12.5km/ℓ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스마트 회생 제동 3.0과 하이브리드 계통형 예측 제어 시스

템이 적용됐다.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은 주행 상황에 따라 최적의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능이다.

하이브리드 계통형 예측 제어 시스템은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와 도로 상황을 예측해 배터리 충전량을 최적으로 제어한다.

셀토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실내 V2L과 스테이 모드를 탑재해 전기차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특화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실내 V2L은 220V 기준 최대 출력 전력 3.52kW이다. 스테이 모드는 정차 시(P挡) 엔진 공회전 없이 고전압 배터리를 통해 최대 1시간까지 휴식 모드를 제공한다.

셀토스는 차체 강성을 한층 강화한 K3 플랫폼을 새롭게 적용해 전반적인 주행

안정성과 안전 성능을 끌어 올렸다. 이번 K3 플랫폼은 충돌 안전 성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계했으며 초고장력강과 핫스탬핑을 확대 적용해 차체 평균 강도를 약 20% 향상시켰다.

셀토스 디자인은 기아 디자인 철학 '오피피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완성했다. 전면은 스타腮 시그니처 라이팅으로 기아 패밀리 루을 구현했으며 후면은 수평과 수직으로 이어지는 테일 램프로 차체의 견고함을 보여준다.

셀토스는 기존 대비 전장 40mm, 축간거리 60mm, 전폭 30mm가 확대돼 전장 4430mm, 축간거리 2690mm, 전폭 1830mm, 전고 1600mm(기준과 동일)의 제원을 갖췄으며 2열 헤드룸과 레그룸이 각각 14mm, 25mm 늘어나 등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과 2열 거주성을 확보했다.

기아는 셀토스 1열에 릴렉션 커버트 시트를, 2열에는 최대 24도까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리클라이닝 시트를 장착해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미디어 사운드 시스템 내장 진동자를 연동해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는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를 기아 최초로 장착했다. 셀토스의 러기지 공간은 동급 최대 수준의 적재 용량 536L(VDA 기준)을 확보했다.

디자인 특화 팀 X-라인은 역동적이 고 강한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셀토스의 외장 색상은 6종의 유광 컬러

와 2종의 투톤 컬러, X-라인 전용 2종 무광 컬러를 고를 수 있다.

셀토스의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 트렌디 2477만원, 프레스티지 2840

만원, 시그니처 3101만원, X-라인 3217

만원이다.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트렌디 2898만원, 프레스티지 3208만원, 시그니처 3469만원, X-라인 3584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셀토스는 지난 6년간 쌓아온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진화한 모델"이라며 "정통 SUV 디자인과 동급 최상위 사양, 신규 하이브리드까지,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가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향토기업 현대하이텍과 630억 투자협약

하남산단 부품 제조공장 신설
30여명 신규 고용 창출 기대

탄탄한 지역 기업 재투자 결정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향토기업인 **(주)현대하이텍**이 총 630억 원을 투자해 광주 하남산단에 '자동차 신규 차종 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광주시는 **(주)현대하이텍**과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신규 차종 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하이텍은 지난 2000년 설립된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로,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한 광주지역 대표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과 김용구 현대하이텍 대표이사, 김현영 부사장, 오장주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하이텍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630억원을 투입해 하남산단 일원에 신규 차종 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광주시는 외부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경기 광주시장이 2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용구 **(주)현대하이텍** 대표이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산업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 이번 투자가 지역 자동차부품 산

업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 기반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LG이노텍의 대규모 투자에 이어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다시 광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지역기업의 성장이 곧 광주 산업의 경쟁력이 되여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컨설팅 지원

내달 25일까지 모집…R&D기획 등 최대 15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25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의 신규 공동사업 발굴과 기존 공동사업 고도화, 정부 R&D 연계 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선정된 조합에는 공동사업 발굴·활성화, R&D 과제 기획 등 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조합 부담금은 10%다.

컨설팅 내용은 시장조사·수익성 분석·재무·마케팅 등을 포함한 신규 공동사업 발굴, 기존 공동사업의 개선·전환을 통한 활성화, 정부 R&D 지원사업 탐색과 조합

연계 과제 발굴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조합 단위의 사업 기획·역량과 수익구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협약 협동조합은 컨설팅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 뒤 협동조합 포털(sc.kbiz.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원 자격과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문컨설팅에 참여한 협동조합은 공동브랜드 개발과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 컨설팅을 통해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신청으로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기부, 올해 텁스 800개사에 연구개발 자금 지원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R&D 일반트랙 50% 비수도권 할당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텁스는 민간의 운영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해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 지원 시스템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개사 늘어난 800개사를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6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R&D 일반트랙 지원 단기가 2년 5억원에서 2년 8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맞춰 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민간자금 유

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R&D 딥테크트랙의 지원대상은 텁스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에서 일반트랙을 출입한 창업기업으로 변경해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 텁스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투자요건도 수도권 기업 대비 50% 완화(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억원) 한다.

또 선정평가 과정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요소와 함께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 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삼성 결합형 세탁건조기, 해외서 '최고 제품' 호평
미국 '굿하우스키핑·리뷰드' 1위…세탁 성능 우수·조작 편의성

삼성전자의 결합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원바디'가 미국 주요 매체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고 있다.

'비스포크 AI 원바디'는 하단 세탁기와 상단 건조기 하나로 결합된 제품으로 빨래 양이 많거나 분리 세탁·건조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라이프스타일 매체 '굿하우스키핑'과 제품 평가 전문 매체 '리뷰드'가 비스포크 AI 원바디를 결합형 세탁건조기 부문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굿하우스키핑'은 이달 최고의 결합형 세탁건조기로 비스포크 AI 원바디를 종합 평가 1위 제품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이달 초 영국 '트리스티드 리뷰'는 비스포크 AI 세탁기를 2026년 최고의 세탁기로 선정하며, AI 기능과 우수한 에너지 효율, 낮은 유지 비용을 호평했다.

제품에 부착된 스마트 스크린을 활용한 직관적인 조작과 삼성전자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 기반의 원격 제어 역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평가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부문에서도 해외 주요 매체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비스포크 AI 품보' 제품이 미국 소비자 평가 매체 '컨슈머리포트'의 최고의 올인원 콤보 세탁기 선정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굿하우스키핑, 트리스티드 리뷰 등 매체들도 지난해 말 해당 제품에 대해 "완벽한 세탁, 건조가 가능한 환상적인 세탁건조기"라고 극찬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해외 매체에서 '2026년 최고의 제품'으로 호평 받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원바디' 결합형 세탁건조기 라이프스타일 이미지.